

## 절제된 표현으로 존재의 근원 추구

글/안창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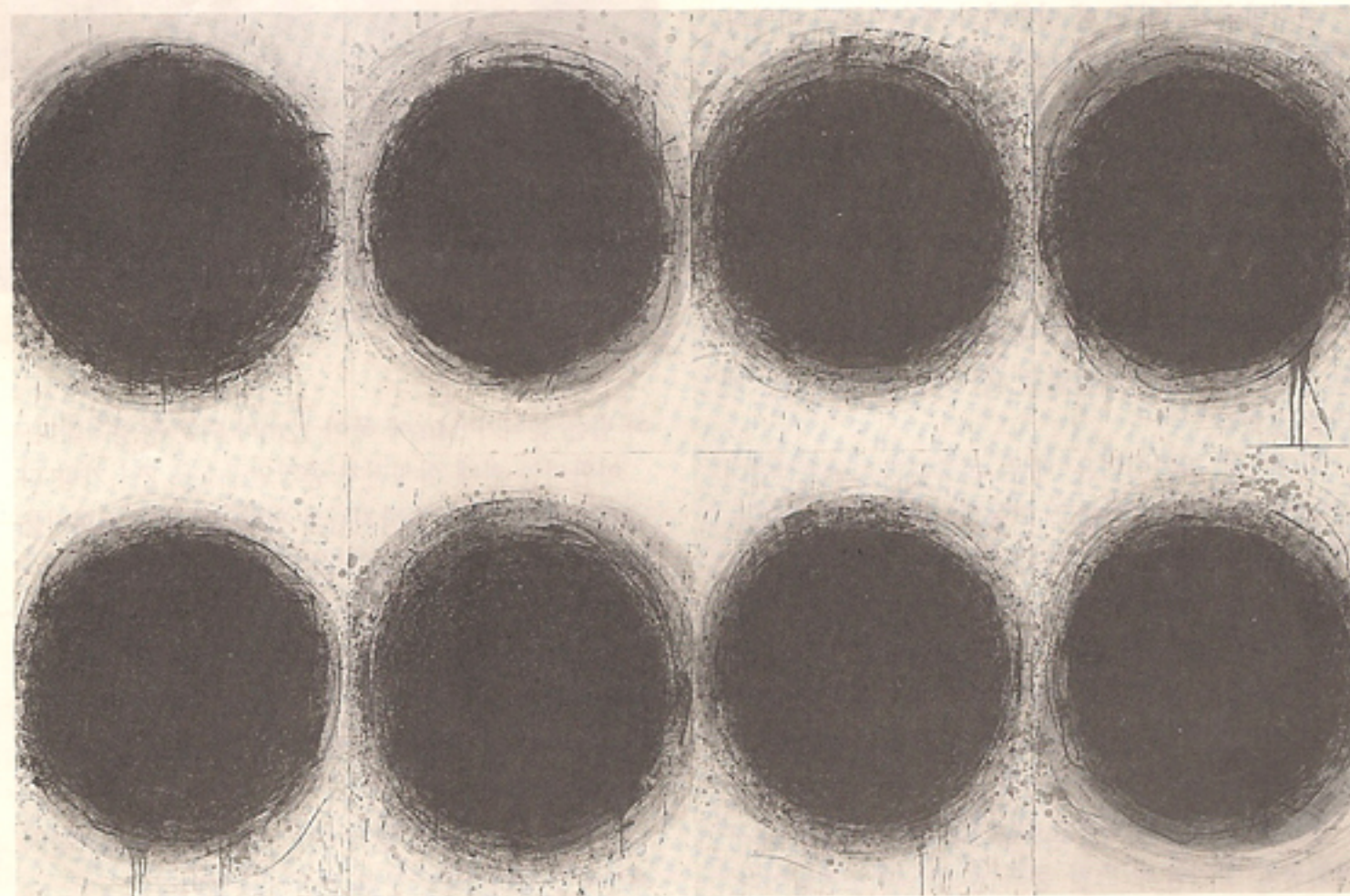


화가 박광진(朴光珍, 38)씨는 우리네의 자연을 담은 침묵과 절제의 작가다.

화려하지는 않으나 소박한 외양속에 담백함과 깊이 있는 속정(情)을 느끼게 하는 우리의 산과 들, 시냇물처럼 그의 그림은 단순한 조형과 색감을 통해 참으로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그의 그림에서는 그리움이 절게 묻어난다. '존재의 근원을 향한 끝간데 없는 그리움' 같은 것. 이것은 그가 일관되게 추구해 온 그의 작품 세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陰陽-소리 1993, 12, 10」 153×226cm 종이위에 오일칼라 1993



평론가 윤난지씨는 "오늘날 다원화된 미술계의 과장과 표현의 시기에서 젊은 작가로서 깊은 철학적 성찰을 배경으로 작업을 지속해 온 박광진과 같은 작가를 발견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한다.

박씨는 작품 초기부터 일관되게 '물성(物性)과 정신을 종합한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갖고 근원을 향한 탐구'를 계속해 오고 있다.

아주 어린시절부터 그림과 함께 해온 그는 79년 이화여대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81년 동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서울 그로리치 화랑에서 제1회 개인전을 열었다.

그이후 지금까지 5회에 걸친 개인전과 제2회 공간국제관화전(우수상)('83) '83 청년작가전, 제18회 쌍파울로 비엔나레('85), 에펠드 서울 한국현대미술전('88), 한국현대관화 40년전(국립현대미술관 '93)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가해 왔다.

유화와 판화를 이용한 그의 작품은 특정 대상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모든 사물의 존재 방식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철학적 인식을 원 또는 사각형과 같은 간결한 형상, 그것의 중앙배치 및 대칭적 구성, 검은 색이나 흰색, 황토색의 색채를 통해 표상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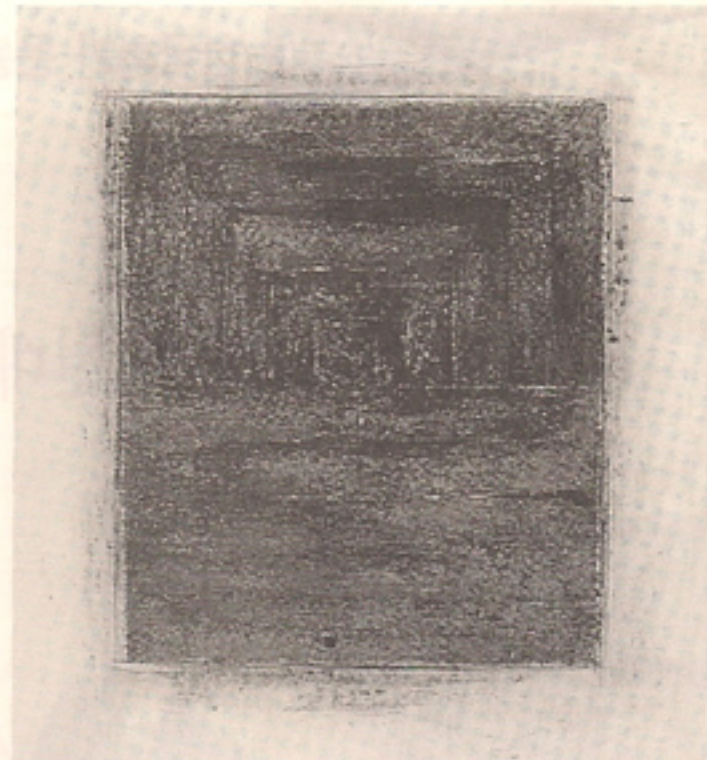
그에게 있어 존재의 방식은 '울림'과 같은 것으로 '모든 사물은 완결된 실체로서가 아닌 상호침투하는 드러남의 과정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같은 존재의 방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빛(광선)'을 포착, 이를 작품 초기의 주제로 삼았다.

그는 '빛'을 물성과 정신성의 통합으로서 이해하며, 이것을 '존재'의 상징으로 간주했다. 그는 빛이 상징하는 특성으로 알 수 없는 침묵, 빈 공간, 무심과 담담, 최소의 절제된 표현, 침묵의 덩어리로 이해, 즉 이 빛을 물질적인 실체로서 보다는 정신의 울림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의식을 투영하고자 했다.

그는 이후 88년도부터 빛으로 인한 밝음과 어둠으로부터 동양사상의 陰과 陽으로 관심을 돌린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음과 양을 근원적인 것으로 한다는 것. '음양'의 원리도 결국 '울림'의 한 양태로 볼 수 있는데, 음과 양은 허와 실, 침묵과 언어, 물질과 정신, 밝음과 어둠 등 대비적인 것들의 상생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음양의 원리는 대비와 보충의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며, 정지된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과정으로서의 개념.



陰陽 1992, 11, 23 (1992) 목판화 91.5×72.5

그는 이를 표현하기 위해 태극이나 하늘과 땅 등 구체적인 형상들 외에도 흑과 백, 직선과 곡선, 오목과 볼록, 수평과 수직, 명확함과 부드러움 등 조형적인 속성들의 상생을 통해서 음양의 원리를 은유하고 있다. 이들 조형요소들은 화면의 좌우, 상하, 그리고 형태의 안과 밖에서 상호작용을 지속하고 있다.

음양의 원리는 그의 제작기법에도 반영되고 있다. 주로 회화와 동판화 제작을 했던 그는 목판에 매력을 느껴 91년 일본 동경 多摩미술대학원에서 1년과정의 목판화 연구과정을 마쳤다. 그후 일년동안 전시활동을 접어둔 채 작품에만 전념한 그는 일반 다작의 판화 제작과는 달리, 같은 판목을 매번 새로 새겨서 계속 찍어 올려가는 방법을 사용했다. 따라서 새김과 찍음을 반복한 작업이 끝난 후에는 똑같은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없게 된다. 투명하면서도 공간감을 주는 특유의 색채 변이는 이런 과정을 통한 물감의 중첩효과에 의한 것.

또한 판목에 물감을 뿌려서 직접 찍거나 함으로써 형태의 윤곽선 부근에 미묘한 효과를 나타낸다. 이는 음과 양의 극단적 색채의 변화 그 경계선에 완충의 역할을 함으로써 편안함과 조화를 상징하기도 한다.

얼핏 보면 단순하고 밋밋해 보이나 소용돌이 모양을 이룬 원형에서 무한한 깊이의 공간을 느낄 수 있고, 직설적이 아닌 은유적인 표현에서 그의 작품을 대하는 관람자는 존재의 근원을 향한 자신의 내면의 울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